

세계가 주목한 김영준 작가와의 만남

전주문화재단, 11일 전시 연계 행사 개최... 전통 나전칠기 · 현대 예술 융합 미래문화 소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오는 11일 어진박물관 지하 1층 열린마당에서 '김영준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행사는 조선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보(御寶)를 나전칠기 기법으로 재해석한 전시와 연계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예가 김영준 작가의 예술 세계를 직접 듣고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자리다.

전시는 두 가지 테마로 이뤄졌다. 첫 번째는 '임금님장'이라는 주제로 어보를 나전칠기 형태로 구현한 전시며, 두 번째는 전통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김 작가의 대표작을 소개하는 기획전이다.

'김영준 작가와의 대화'는 사회자의 개회 및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전주시장의 환영사, 송광사 법진 주지스님의 축사, 김영준나전미술관 심수지 관장의 작가 이력 소개와 전시 해설, 이어 김 작가의 주제 강연 '천년의 빛, 미래를 품다'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작가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윤희 교황 의자'를 제작해 세계적 주목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김영준 작가와의 만남 포스터
케이스 제작으로 화제를 모았다. 앞서 2008년

에는 빌 게이츠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선물할 X-BOX를 의뢰한 일화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은 빌 게이츠, 힐러리 클린턴, 워렌 버핏 등 세계 30개국 정상에게 소장될 만큼 예술성과 상징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전통 예술에 머물던 나전칠기를 휴대폰, 화장품 케이스, 호텔 인테리어, 고급 차량, 유람선, 항공기 일 등식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왔다.

2024년에는 CNN 'Great Big Story'에 출연했으며, 2022년에는 한-이탈리아 공동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주요 전시 이력으로는 캐나다 한국문화원 개원 초대 개인전(2016), 광창 비엔날레 초대작가(2015), 주영 한국문화원 상설전, 봉은사 초대전 등이 있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전통의 깊이를 지닌 나전칠기라는 소재가 세계적 예술 언어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역 공예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미래문화콘텐츠팀(063-212-8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부안군립농악단 소속 류신옥씨가 최근 전주에서 열린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농악부 개인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부안군립농악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전통 가치 나누는 농악인 되고 싶어”

부안군립농악단 류신옥씨,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농악부 개인상 수상

부안군은 부안군립농악단 소속 류신옥씨가 최근 전주에서 열린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농악부 개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통예술 경연무대에서의 이번 수상은 지역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류신옥씨의 예술적 기량을 전국에 다시금 알리는 쾌거로 평가된다.

류신옥 씨는 1985년 고은(鼓隱) 이동원 선생의 제자로 입문하여 본격적인 농악 수련을 시작했으며 부안 우도농악의 전통 맥을 잇는 대표적인 젊은 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번 대회에서 류신옥씨는 역동적인 장구 연주로 깊은 예술적 해석력으로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류신옥씨는 현재 상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농악 강사로도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통문화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

류신옥씨는 “고은 이동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안 우도농악의 맥을 물려받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공인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전통의 가치를 나누는 농악인이 되고 싶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문화재단, 한복문화 확산 거점으로 도약

'지역 한복문화창작소 지원종료처 추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이 운영하는 전주한복문화창작소가 2025 지역 한복문화창작소 지원종료처 추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그간의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르면 2022년 조성된 전주한복문화창작소는 지역 기반의 교육·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한복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상반기에는 실습 중심의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며 시민과 청소년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대표적인 상반기 프로그램으로는 △찾아오는 한복문화교육 △소품제작 교육 △전시 프로그램 △찾아가는 한복문화창작소 △전주한복 원복 보급사업 등으로, 이 중 '찾아가는 한복문화창작소'는 전주 지역 고등학교 및 덕진공원 등에서 직접 진행되며 주목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한복의 명칭과 구조, 착용법, 고름 매는 법 등을 배우고, 장명부(長命縷) 만들기과 복주머니 브로치 제작 같은 체험 활동을 함께 경험했다. 이 프로그램은 800여 명의 시

민과 청소년이 참여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품 제작 교육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복주머니 키팅, 보자기 화분, 모시 향낭 등 전통문양과 소재를 활용한 실용적인 소품을 직접 제작하며, 한복의 미적 가치와 실용성을 동시에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하반기에는 '2025 한복문화주간'이 새롭게 개최된다. 이 행사는 전시, 교육,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다.

또한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복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두근두근 K-바깥스 꽃집가득 국내여행' 캠페인에 참가해 전북 대표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전북 관광의 매력을 적극 알렸다.

전북자치도, 서울 청계광장서 전북 관광 매력 알리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두근두근 K-바깥스 꽃집가득 국내여행' 캠페인에 참가해 전북 대표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전북 관광의 매력을 적극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KB금융그룹, 한국관광공사 등이 주최하고, 9개 시도가 참여, 네이버와 네이버뉴스가 후원한 전국 단위 관광 홍보 행사로, 국내 여행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을 비롯해 서울, 대전, 광주, 강원, 충북, 경남, 경북 등 9개 시도가 참여해 각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과 특산물을 홍보

하고 방문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자치도는 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전북문화관광재단, 도내 7개 시군이 협업체로 전북 통합 홍보관을 구성하고, 지역 특산물과 관광 기념품을 전시하는 한편, 14개 시군의 관광 정보를 담은 리플릿을 관람객들에게 배포하며 전북민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집중 소개했다.

특히, 이날 김중훈 전북 경제부지사는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내여행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는 K-바깥스 캠페인' KBS 생방송에 현장 중계로 연결돼, 전북 홍보부스를 직접 소개하고 전북의 여름 바깥스 여행지를 추천했다. /이만호 기자

무주군, '호생관 최복' · '조선왕조실록 이안행렬' 웹툰으로 탄생

무주군이 '호생관 최복'과 '조선왕조실록 이안행렬' 관련 브랜드 웹툰 제작을 마무리하고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홍진홍 무주문화원부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웹툰 등 제작물을 시청하고 앞으로의 활용 및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작물은 역사적 고증을 통해 탄생시킨 역사 콘텐츠로,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의 적

상산사고 이안과정과 적상산사고를 지켜낸 백성들의 숨은 이야기, 그리고 △조선시대 산수화의 대가 '최복'의 이야기를 6회 분량의 웹툰과 뮤직비디오 1편, 30초~1분 영상에 담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나무로 치면 뿌리"라며 "근간이 흔들리지 않아야 지역이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층을 포괄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웹툰을 제작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북과 이안 행렬을 소재로 삼은 이유는 무주군이 지키고 알릴 수 있는 근간 중 하나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웹툰이라는 대중적 콘텐츠를 통해 무주군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사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